



사천시보

<http://www.sacheon.go.kr>

12

2013년 12월 2일

NO. 212

FAX : 055)831-6011, E-Mail : shgongbo@korea.kr

발행인 사천시장 / 발행처 사천시 : 우)664-701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501) / 편집 기획감사담당관실 / 전화 055) 831-2215 / 1996년 1월 25일 창간

사천시민 대종각



사천정명 600주년 '600년을 이어 천년을 향해'

▣ 주요 지면안내

02

연말·연시 행사

03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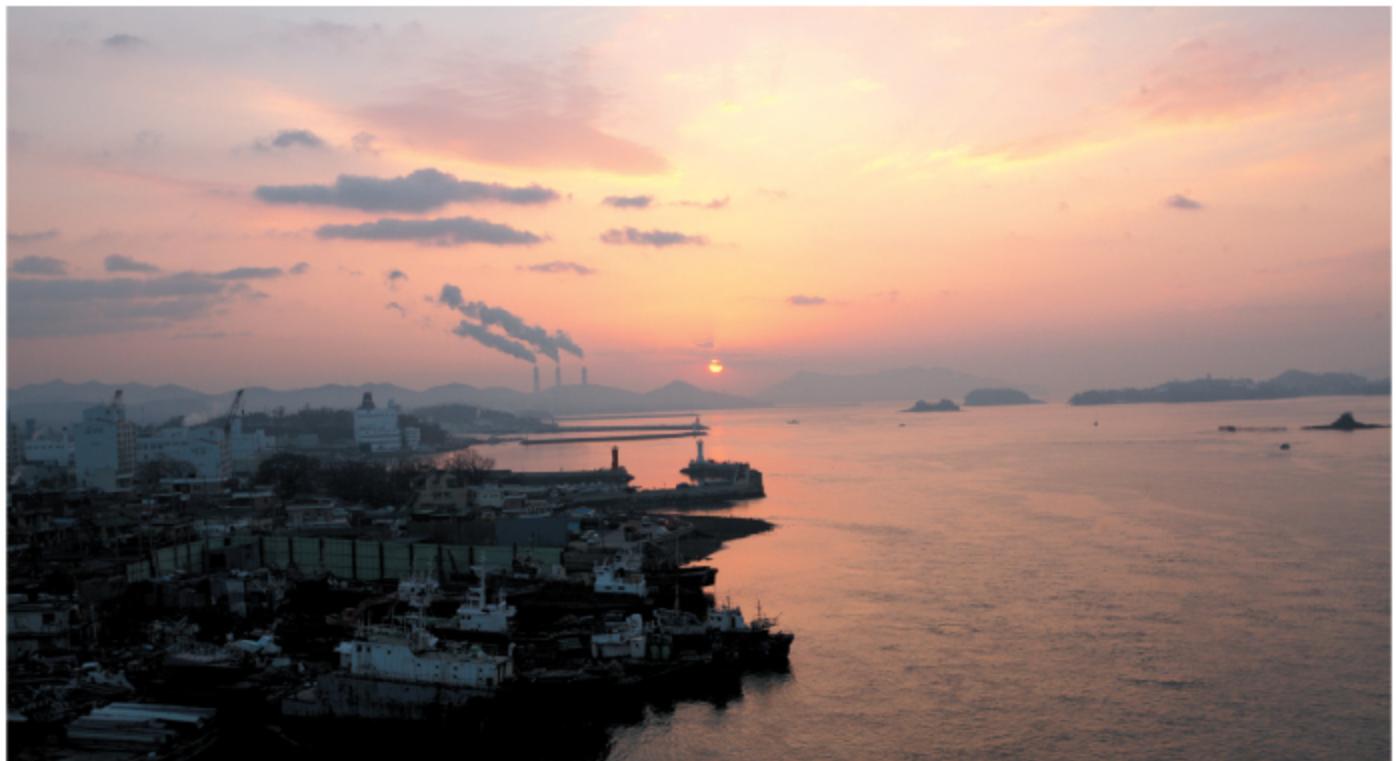
05

사천정명 600주년 기념행사 성료

16

자살예방네트워크 풀가동

사천시가 매월 발행하는 사천시보는
사천시청 홈페이지 'e-book'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삼천포대교에서 바라본 일출 광경.

“연말·연시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천시는 계사년 한해를 보내고 갑오년 새해를 맞아 12만 사천시민의 소망과 건강 및 시의 발전을 기원하는 2014년 새해 해맞이 축제 행사에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2014년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

“새해 소망을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 삼천포대교에서 뵙어보세요!”

사천시가 갑오년 새해 첫날 삼천포대교에서 시민의 행복과 도시 발전을 기원하는 ‘2014년 삼천포대교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9대 노을 명소’이자 한려수도의 중심지인 삼천포대교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전국에서도 경치가 뛰어난 곳으로 손꼽힌다.

삼천포대교에서 바라본 일출은 그 장엄함에 암도되며, 해가 솟아오르는 순간 절경을 이루며 만들어내는 장관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일년 내내 그 여운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게 할 것이다.

해맞이 행사는 갈يلي 공연과 모듬북 공연을 시작으로, 대방금향 앞 신 방파제에서 신년 축포를 쏘아 올려 화려한 공연과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감상하게 된다.

이어 ‘희망의 북’ 타고(打鼓)와 ‘만세 삼창’, ‘소망 연 날리기’, ‘다리 밟기’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이날 해맞이 행사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추위를 녹여주기 위한 따뜻한 지

원의 손길이 이어진다.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에서는 시민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며, BAT 코리아사와 사천시 새마을회 합동으로 백곡을 무료로 나눠준다. 또 사천여성 의용소방대와 대방동 큰고을 굴항회에서는 따뜻한 차를 제공하여 사천시민의 훈훈한 정을 전해 줍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천시 삼천포항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한려수도의 중심지이자 자연산 활어회의 접산지로, 둘째안이나 서해안의 해돋이·해넘이에서 느끼지 못한 색다른 맛과 맛, 불거리로 관광객들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맞이 행사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천시청 총무과(☎831-2565)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12월 31일 오후 11시30분부터 1월 1일 0시 20분까지 시청 광장에서 사천시민대중 제야타종행사를 개최해 한해를 마무리한다.

◆ 사천시민과 함께하는 송년콘서트

연기가수들의 화려한 무대가 송년 콘서트에서 펼쳐진다.

사천시는 12월 27일 오후 7시부터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박완



2013 송년 콘서트
2013. 12. 27 (금) / 19:00 ~ 20:30 (최종)
장소 : 사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제 : 박완규, 배인스트립밴드 10인조
내국인 출연 : 박완규(2013년 12월 27일)
국내외 출연 : 배인스트립밴드 10인조
문의 : 055-871-3568-3 / http://art.sacheon.go.kr

규, 소찬휘, 배인스트립밴드 10인조를 초청해 시민들과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콘서트를 개최한다.

부활의 싱어로 활약하다, 솔로앨범 ‘천년지’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박완규는 2012년 MBC TV ‘나는 가수다’에서 5월의 가수상을 수상하여, 락커

박완규로서의 진가를 다시 한번 대중에게 보여주며 인기를 얻고 있다.

데뷔앨범 ‘Tears’로 고음의 완벽한 가창력을 인정받았던 소찬휘 역시 2012년 MBC TV ‘나는 가수다’에서 자리 있는 가창력으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이후 콘서트 및 뮤지컬에 출연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기타, 드럼, 베이스, 올건, 색소폰, 트롬본, 알토 등의 다양한 악기와 남녀 혼성 보컬로 구성된 10인조의 실력 있는 락 밴드 ‘메인스트립밴드’의 화려한 무대가 마련된다.

대학교 강사진으로 구성된 메인스트립밴드는 단독콘서트를 수년간 개최했을 만큼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이미 인정받는 베데랑금 밴드이다.

시 관계자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아쉬움과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이번 콘서트를 마련하게 됐다”며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고자 실력 있는 가수들로 초빙해 훈훈하고 열정적인 송년콘서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티켓은 12월 16일부터 사천시문화예술회관(<http://art.sacheon.go.kr>)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하며, 관람료는 일반 20,000원, 문화가족 및 단체(10인 이상)는 15,000원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송년콘서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천시청 문화관광과 공연기획담당(<http://831-2460-3>)으로 하면 된다.



사천시외버스터미널 부지조성사업 기공식.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본격화

지난달 부지조성 기공식…이용객 편의 증진·도시상권 활성화 기대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사천시외버스터미널(사천시 사천읍 소재) 이전이 가시화됐다.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사업 시행자(정극필 외 16명)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30분 경남자영고교 맞은편 사천앞을 지역의 선인리 319-6번지 일원 2만 85평 부지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은 이날 부지조성 기공식을 시작으로, 터미널과 편의시설, 광장, 녹지, 도로, 주차장, 차고지 등 준공 절차를 거쳐 오는 2015년 상반기 이전할 계획이다.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가시화 되면서 터미널 현대화에 따른 이용객 편의증진과 옮겨가는 선인리 지역의 도시상권 활성화

가 기대되고 있다.

앞서 사천읍 중심지에 위치한 기존 터미널은 1978년 건립,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의 편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대형차량의 시가지 진입을 차단해 시가지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이용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사천의 도시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결정하게 됐다.

사업시행 관계자는 “기존상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6층 규모의 복합상업시설을 건립해 업무시설(금융기관, 판매시설) 및 오피스텔을 유통하고, 기존터미널 부지 내에 완행노선 전용 간이정류장 설치와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해 기존상권과 융합



하는 중심상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소유주인 정극필 대표는 “사천시 창구 기능을 하게 될 터미널 인 만큼 ‘비상하는 도시 사천’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바다야 놀자’ 성황

체험형 프로그램 풍성

싱싱한 활어회와 삼천포항 경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사천에서 열렸다.

지난 6월 새롭게 단장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상인들이 주최한 첫 시장축제 ‘바다야 놀자’가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 일간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역민과 더불어 즐기는 대동놀이 한마당으로 펼쳐진 이번 축제는 삼천포용궁수산시장상인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이 주관한 것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형 축제로 참가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행사 첫 날인 22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개막식에는 시청 관계자를 비롯한 유관 기관 단체장들이 참여해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의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용궁 마당극과 용궁 퍼레이드를 비롯해 새롭게 선보이는 용궁 마술쇼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준비

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상인들의 참여가 돋보이는 동아리 발표공연에는 사물놀이 공연 한 마당이 펼쳐졌으며, 용궁체조 미니 경연대회와 상인 노래자랑, 끌든벨 퀴즈, 즐다리기 한마당 등이 준비되어 축제 분위기를 한 층 더했다.

이와 함께 관람객들이 직접 수산물을 만져볼 수 있는 용궁수산물 맨손잡기 한마당,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등 오감 체험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함께 참돔 뺨리 챌기와 조개 빨리 끼기 대회 등 용궁 수산물 기네스대회가 열려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맞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수산시장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새롭게 단장된 용궁수산시장의 첫 축제인 만큼 체험형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다”며 “깜짝 경매행사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총합당과 회 무침 시식회도 마련돼 삼천포 수산물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빨간 자전거로 행복 배달하세요

사천시-사천우체국 소외계층 위한 복지 업무 협약

사천시는 사천우체국과 지난 11월 7일 오전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는 우체국 집배원들이 민원서류 및 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생활상태, 불편사항, 위험상태 등을 파악해 전화 또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천시에 제보하면, 시는 신속한 대처와 해결에 나서는 민원·복지 서비스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천우체국 집배원 48명은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등 소외계층 3,50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상자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자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등 8종 민원서류를 신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12월 20일까지 연장

사천시는 201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20일까지 연장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경작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일부 투입되며 농가의 자부담이 포함된다.

내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신청기관이 능협에서 읍면동으로 바뀐데다 농업인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신청 혐의 능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기한을 기존 11월 30일에서 12월 20일 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에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류(흔합유박, 흔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와 부산물비료 2종류(가축분뇨비료, 뇌비)이며, 종류별 한포당(20kg) 1,300원에서 2,000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이 많을 경우 개인당 지원률량이 조정될 수 있다.

경하거나 복지업무관련 각종 안내문이 발송될 경우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서비스가 적용된다.

일반 우편물과의 구별은 우편물 배달시 집배원이 소외계층 생활실태 확인용 우편불임을 알 수 있게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가 봉투에 표시된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한 민원서류를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방문해 생활실태, 건강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1인 고령가구의 증가로 인해 복지민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사천우체국과 협업을 통해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사천우체국 하수환 국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집배원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의 편의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사랑과 행복’

사천시민봉사단, 어르신 위한 무료 식사대접으로 훈훈

“보잘것없는 짜장면 한 그릇이지만 어르신들이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놀라요.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의 행복이 이런 건가 봐요”

지난달 2일 사천시 남양동에 있는 양로원 ‘삼소원’ 안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40여 명이 익기종기 식탁에 둘러앉아 짜장면을 먹고 있다.

어르신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온 백발노인도 계시고,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겨우 의지한 채 식당에 걸어온 할아버지도 계셨다.

이날은 사천시 시민봉사단(대표 정대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공짜로 짜장면을 대접하는 날로, 주방에는 봉사단원들이 직접 면을 끓고, 뷔은장을 떠 담는 등 분주했다. 품에서도 노력봉사가 한창이었다.

지난 9월에 결성된 사천시 시민봉사단은 사천시청 소속 공무직 노조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회원들이 직접 짜장면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도구 및 재료를 사비로 구입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0월 삼천포 종합운동장에서 100인분 가량의 짜장면을 손수 만들어 시민들에게 대접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벌용동 제일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짜장면을 손수 대접하는 등 짜장면을 통한 사랑을 전하고 있어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한 봉사단원은 “매번 무료 짜장면을 준비하는 것이 박찬 일이지

만, 짜장면을 드신 어르신들이 한결 같이 ‘고맙다. 맛있게 먹었다’는 인사를 빼놓지 않을 때면, 힘든 것 보다 기쁨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정대은 대표는 “짜장면 한 그릇에 깃든 나눔의 행복이 너두도 크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관내 다양한 봉사단체와 협의해 식사 봉사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의 손길을 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 단신/

2014년 조사료 지원 안내

사천시는 지역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조사료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해외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14년부터 조사료 사업화 제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면적 없이도 기계장비를 지원한다.

사업화제조비 지원의 경우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조사료생산 경영체에 한해 지원하면 것을 일반 축산농가의 자가소비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조사료경영체) 등이 기존 조사료 제재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기계장비를 지원받던 것을 지원받은 지 5년 이상 경과된 부속장비(라운드 접개, 비료살포기 등)에 한해 추가면적 확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농산부산물의 활용을 위해 벚꽃, 보리짚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역세와 콩대 등 농산부산물의 이용에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접수

사천 농업의 ‘대들보’ 2014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가 이달 31일까지 이뤄진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영농창업농, 가업승계농 등 젊은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해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9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내년에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 병역의무를 끝했거나 면제된 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임대상자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농고·농대 등 농업계학교를 졸업했거나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로 농업경제 등록이 되어있거나 등록예정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까지 농지구입·영농시설 등에 필요한 창업비용을 융자 받을 수 있다. 연리는 3%로 3년 거치 7년 분할환이다.

지적재조사사업 설명회 개최

사천시는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사천읍 수석1리 지구를 시작으로 총 10개 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지난달 2일 사천읍 수석1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읍면 각 1개 지구, 동지역 2개(동서동·남양동) 지구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추진목적, 대상,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시는 전체 약 15%정도가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다른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올해 동지역 2곳을 지적재조사 사업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를 아시나요?”

가격·친절·청결 모두 최고… 관내 24개소 운영



경기는 어렵고 물가는 오르고 있다. 직장인들의 지갑은 갈수록 가벼워지는데 비해 식자재 값은 계속 오르니 음식점 등은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천결도와 청결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곳들이 있다.

사천시에는 개인서비스요금 안경에 기여한 공로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선정된 ‘착한가격업소’ 2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란 높은 물가와 인건비, 제료비 등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말하며, 안전행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배점기준은 지역평균가격 미만, 천결도와 청결도, 가격표시제 등이며 현지실사와 위원회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착한가격으로 실질적 제감률과 안경에 기여해 온 입소 24개소이다.

안전행정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 및 표찰을 교부 받게 되며, 은누리 상품권과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 제공과 실제매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에서는 착한가격업소가 경영컨설팅 및 시설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안경적인 불가관리 유도를 위해서도 혁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착한 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사천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2013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 업소명 | 세 주소 | 면락처 |
|--------------|------|----------|
| 다솜이네 | 사천읍 | 854-3112 |
| 제일국수 | 사천읍 | 854-8444 |
| 해오름마용실 | 사천읍 | 852-0512 |
| 시장국수 | 사천읍 | 852-0244 |
| 사천성 | 사천읍 | 855-1181 |
| 예지분식 | 사천읍 | 854-1054 |
| 가산식당 | 사천읍 | 852-3063 |
| 사천촌국수 | 사천읍 | 854-9494 |
| 북도리분식 | 사천읍 | 852-4557 |
| 율래국수 | 사천읍 | 853-0488 |
| 진티분식 | 사천읍 | 852-3619 |
| 송보세탁 | 정동면 | 853-3503 |
| 피자늘큰치킨 | 용현면 | 835-5777 |
| 비룡반점 | 곤양면 | 854-5285 |
| 진경식당 | 곤양면 | 852-6550 |
| 비단혜이샵 | 서포면 | 853-1056 |
| 환성횟집 | 서동 | 832-1384 |
| 스마일세탁소 | 서동 | 835-7730 |
| 명진세탁소 | 서동 | 833-7379 |
| 한내세탁소 | 선구동 | 832-9185 |
| 한주미용실 | 봉급동 | 833-4016 |
| (소문난) 송가네컵국수 | 봉급동 | 833-3351 |
| 산호탕 | 수남길 | 833-3511 |
| 김미용실 | 세동네 | 835-0328 |



600년을 이어 천년을 향한 비전 제시

사천정명600주년 기념행사 성료

사천지명 사용 60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 까지 양일간 사천시청 광장과 사천시문화 예술회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600년을 이어 천년을 향해'라는 슬로건으로 치러진 이번 '사천정명 600주년 기념행사'는 과거 600년의 역사와 전통을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천년을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치러졌다.

지난달 16일 전야제에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학술세미나'와 사천정명 600주년을 기념하는 극단 장자 번역의 창작공연 '침향', 사천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경주시의 경주시립극단 초청공연이 펼쳐졌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

린 역사 세미나에는 '사천의 역사에서 본 정명 600주년의 의미'와 '사천의 근세를 빛낸 인물들'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이어 17일에는 대동한마당행사와 개막식 및 사천시민대종 타종식, 인기가수 초청공연 등의 순으로 사천정명 60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했다.

시민 대동한마당행사가 11월 17일 오후 3시부터 읍면동별 농악대를 선두로 한 입장과 함께 펼쳐져 경축 분위기를 돋웠다.

또 사천가수협회에서 주관한 축하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날 축하공연에는 사천지명을 테마로 한 옛 노래를 선보여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진 기념식은 국내외 내빈과 시민

등 모두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행사는 사천정명 600주년 추진사업의 결과보고에 이어 600연의 축하영상이 방영되고, 사천시민대종과 종각을 건립해 기증한 한창우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대종각 제막, 기념식수, 시민들이 끈과 끈을 이어 참여하는 타종식 순으로 공식 행사가 마무리 됐다.

오후 5시부터 펼쳐진 축하공연에서는 12차 농악, '민'무용단, 동서동주민자치센터 댄스팀 등 지역단체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장미여관, 비부비, 크레용팝, 김혜연, 오승근, 조이브라스, 김용임, 박상철 등 인기 초청가수들이 무대에 올랐다. 또 8분간의 레이저쇼와 불꽃쇼가 사천정명 600주년 기념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부동산 공적 장부 한 눈에

사천시는 지난달부터 지적·건축물·등기 등 각종 부동산 공적장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지적도·토지·건축물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이 개별법에 의해 하나의 부동산정보를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관리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은 물론 각종 수수료 비용을 부담했다. 또한 부동산 공적장부의 불일치나 오류로 재산권 침해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 등 공부상호간 불일치하는 오류자료를 찾아 6만여 필지를 정비했다. 또, 올 연말까지 총 18종의 부동산행정정보 통합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년 1월 18일부터 전국 시·군·구·면·읍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온라인(www.onnara.go.kr)을 통해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해지고,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 3종이 추가 통합된다.

시는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하나의 정보로 통합된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됨으로써 서류 발급에 따른 경비와 시간소요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천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랑의김장나누기 행사 개최

사천시삼천포용궁수산시장-금산수산센터 자매결연

국내 대표적인 인삼시장과 수산물시장이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발전을 모색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사천시삼천포용궁수산시장은 지난 10월 30일 국내 최대 인삼 시장인 충남 금산수산센터 교류관에서 삼인회장과 삼인시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교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 간 협력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상호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두 시장은 특판전 등을 통해 상호 교류의 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금산수산센터를 들러온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상인 40여 명은 금산수산센터 상인예술단 뮤지카 동아리 '인삼향기'의 연주를 감상하고 인삼주 담그기, 금산인삼관 및 대문산 관람 등 다양한 체험행사에 참가해 양 전통시장 간 화



합을 도모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김원환 상인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산수산센터와 새로운 협력과 상생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서로 협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두 전통시장이 중소 기업형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의 시장발전 프로젝트인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뤄졌다.

사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최연순)에서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사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회원 3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3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한다.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김장을 담그지 못하는 주위의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되는 것으로, 이날 회원들은 김장김치 용 배추 7,000포기를 준비해 20kg들이 900봉의 김장을 담궈 관내 농노인과 장애인 세대 등 총 900세대에 나눠줄 예정이다.

연말을 맞아 관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는 사천시와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희망나눔회 사천시협의회, 경남은행삼천포지점등에서 지원해 마련됐다.

사천시, 청소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다채

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중독·학교폭력 등 상담

사천시에서는 관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 상담을 통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채로운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인터넷 중독예방프로그램에서부터 학업과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마련해 건전하고 알찬 청소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독현상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중독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테마별로 △인터넷 레몬교실 △스마트미디어 레몬교실 △건강한 인터넷 멘토링 등으로 나뉘어 용바른 인터넷 이용 요령과 인터넷 중독의 이해와 예방법 등에 대해 알려준다.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 작성 후 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팩스(831-4626)나 이메일(coun7942@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70-8145-8017)로 문의하면 된다.

◆ 자살예방 프로그램

'2013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상시 운영된다.

자살예방프로그램은 최근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자살이 늘면서 충동적인 자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시켜 자살충동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OX퀴즈, 자살위기 대처 방법 등이다.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는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832-7942)로 사전 접수 및 문의하면 된다.

이 외에도 분노조절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분노조절 상담은 자신의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스스로 통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을 알게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진로탐색 프로그램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이해하고,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상황적, 심리적 어려움과 진로 탐색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내 꿈은 내가 만든다'를 운영한다.

이번 진로컨설팅은 연말까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적성 및 진로 탐색 검사를 통해 진로 코칭 포트폴리오 및 인생설계도를 작성하게 된다.

진로상담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사전 예약 후 신청서를 팩스(832-7959)나 이메일(coun7942@hanmail.net), 방문 접수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상담지원팀(☎832-7942)으로 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과 넓은 세상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줘 청소년 스스로가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심리검사 프로그램

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심리검사를 통한 개인 맞춤형 학습 진단 및 진

교육 4시간, 기본공통교과 5시간, 전문 체험활동 7시간, 재량활동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전문토요체험활동은 월 3회 재량토요체험 월 1회로 유동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개발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수준 높은 맞춤형 방과 후교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 계층 자녀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습 의욕을 고취해 학습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070-8145-8031)로 전화하면 된다.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무료 방과후 교실 운영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가 관내 저소득 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료 방과후 교실을 운영해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올 연말까지 오후 4시30분부터 8시50분까지 주 5일간 교과 과정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며, 자가주도



◇ 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명 | 대상 | 내용 |
|----------|---------------|-----------------------------------|
| 친구관계 향상 | 초1~6 |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 기술 습득 |
| 품성개발 | 중 | 개임, 사이코드드래기법, 역할극 등 다양한 활동적 기법 활용 |
| 위기 예방 | 미술활동을 통한 자기성장 | 초3~6·중 |
| | 진로탐색 | 중·고 |
| | 자아존중감 향상 | 중 |
| | 율법품성개발 | 초1~6 |
| | 공동체교육 | 초5~6·중 |
| | 학교폭력예방 | 초4~6·중고 |
| 위기 대처 | 분노조절 | 초3~6·중 |
| | 청소년자살예방 | 중 |
| | MMTIC 성장 | 초5~6·중 |
| 심리 검사 | MBTI 성장 | 고 |
| | 검사를 활용한 진로탐색 | 초4~8·중·고 |
| | 검사를 활용한 진로탐색 | 중·고 |

○ 접수방법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접수는 사전에 전화(832-7942)로 협의 후 신청서 약식에 의거 메일 <coun7942@hanmail.net> 및 팩스(832-7942)로 전송

로 탐색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고 있다.

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능력을 잘 갖췄는지 알아보는 'MMTIC(초5~6·중)'과 'MBTI(고)' 등 심리검사를 진행한다.

심리검사를 통해 인성과 학업 부분에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 기 때문에 부모는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고, 학생 본인도 학습 능률에 도움이 되

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성격형성 및 자존감 등 의 정서발달은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성격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성격에 따른 학습계획을 세우면 학습 성취도가 높아져 자신감도 생기게 된다"고 전했다.

참가 희망자는 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832-7942)로 예약접수를 하면 된다.

공공도서관 12월 문화행사

관내 공공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이해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운영, 친근한 도서관 만들기에 한몫한다.

삼천포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폭넓은 학습기회와 창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12월 15일 오후 2시부터 '책 상상여행'을 운영한다. 사람을 주제로 한 활선 미 작가의 '명청한 편지가'를 읽고 생각나누기 및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등의 시간을 갖는다.

특히 12월 14일에는 남양양로원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어르신과 함께하

는 우리 가락 민요교실'을 운영한다. 노동요, 벗노래 등 삶의 에환이 담긴 민요를 따라서 불러 보고 장단에 맞추어 다양 한 춤사위 등과 배우기 등을 마련한다.

사천도서관에서는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층 로비에서 나만의 도서관 가방 만들기 행사를 갖는다. 어린이들이 그림 책을 읽고 다양한 캐릭터와 기억나는 장면을 나만의 가방에 직접 그려보는 창의 활동이다. 또 28일 오전 11시 시청각실에 서 겨울방학맞이 인형극 '신기한 할간 모자'를 공연한다. 도서관 12월 문화행사와 관련해 기타 문의사항은 삼천포도서관 어린이자료실(☎835-4435) 또는 사천도서관(☎853-8402)으로 하면 된다.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 실질적 성과 요구

사천시의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소관집행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했다.

14일부터 20일까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향취하고 우리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는 시민 요구사항을 전하며 개선을 요구하면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히 했다.

11월 21일에는 9시 30분부터 현장방문 활동을 가졌다. 관내 주요사업장과 민원이 자주 발생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할 점은 지적하고

임시의 끝째 날인 11월 13일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천시지방공무원특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소관집행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했다.

14일부터 20일까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향취하고 우리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는 시민 요구사항을 전하며 개선을 요구하면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히 했다.

11월 21일에는 9시 30분부터 현장방문 활동을 가졌다. 관내 주요사업장과 민원이 자주 발생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할 점은 지적하고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하며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특히 사천시 종합장사시설 신축현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부입된 만큼 시설이 원로되면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장사시설이 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니 주변에 수벽을 조성하여 해양관광도시로 알려진 우리시 이미지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요구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의결하며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 5분 발언



여명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지 가져본 신청에 맞서 식발하고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는 선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등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난 3년간 해왔습니다. 또한, 전국각지에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은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 베베농가지원조례, 학교급식지원조례, 건설노동자체불임금지급조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조례, 영유아무상예방접종조례, 방사능없는학교급식조례 등 수많은 정책활동을 통해 지역의 풀뿌리경쟁활동을 이끌어왔다고 자부합니다.

현법재판소에 청구된 가져본 신청 내용을 보면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13만 명의 전 당원이 아무런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의 분당, 합당, 해산 및 당원의 입당, 탈당, 제명을 금지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경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가져본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통합진보당 의원인 저는 하루아침에 의회 출석은 물론 모든 의원활동이 금지됩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13만 통합진보당 당원은 그 누구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후보도 지지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14년간 활동해온 정당을 해산하고 경당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이데올로기를 내세워 국민들의 무서운 레드카펫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내란음모로 재판 받고 있는 이석기의 원외 공판 과정을 보면 녹취록의 원본일부가 분실된 것부터 시작하여 녹취록이 272군데나 왜곡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사건과 정당해산청구의 원인이 작년 대선기사에 국가기관 즉 국정원·경찰청·국방부·국가보훈처 등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들어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여론용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진보당은 아직도 대중정당으로서 많은 부족함을 안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끔한 질타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부당합니다. 정당을 해산시킬 권리는 현법재판소에 있지 않습니다. 정당의 해산은 선거를 통해 평가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라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경쟁하고 공존하는 것이 우리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하여 틀렸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수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다수의 지지를 받고자 노력하지만 소수가 지지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그 소수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래 그 징을 잘라 없애려고 하는 것이 독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공간에서 의원생활을 하지만 쟁반한 제 모습이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에게는 참 어색할 것입니다. 저 또한 10년 넘게 봄담아온 정당이 하루아침에 해산심판 청구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참으로 황당하고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부디 동료의원들과 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통합진보당을 지지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통합진보당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불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여명순 의원입니다. 이렇게 식발을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깊은 양해를 바라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만규 시장님과 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및 경당과 의원활동정지 기자분이 청구된 다음날부터 통합진보당 국회 의원 5명이 식발과 단식을 하면서 현재 까지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하여 전국의 통합진보당 지방 의원 100여명이 정당해산과 경당활동정지

나선가구 무소속 최수근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이 받은코자하는 주요 내용은 첫째, 비토별주부전 테마파크조성 사업을 조속완공한 후 와룡문화재행사 중 수궁가경창대회 및 고수대회 등 일부행사는 비토별주부전테마파크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하자는 제안과, 둘째, 비토비단나루시공원조성사업과 거북유람선 활용방안, 셋째, 봉명산 다솔사 등산로 인근 녹차밭 옆에 있는 서봉사지(址)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토별주부전 테마파크조성사업을 조속 완공한 후 와룡문화재행사 중 수궁가경창대회 및 고수대회 등 일부행사는 비토별주부전테마파크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하자는 제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토별주부전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9년 10월 착공 후 현재(2013년 11월)까지 4년간이나 공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야외공연장, 야외쉼터, 산책로, 미로숲길,

해변테크시설, 전망대, 늪이공원, 화장실, 농산물직판장, 주차장” 등을 추진 중에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어, 주차장 등 공사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관광객을 유치(誘致) 할 수도 없으며, 찾아오는 관광객으로부터 비난과 비속을 사고 있을 뿐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표토유실, 촉구의 매몰, 파손 등으로 각종 사업들은 재시공, 또는 보수해야 할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8면서 계속



최수근 의원
총무위원회

☞ 7면에 이어

우리 시에서는 매년 4월 초순이면 와룡문화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와룡문화제는 서제와 열린한마당을 시작으로 1)문화제시연(마도갈방아소리 외 2개 행사), 2)전시행사(우리문화제알림터 외 4개 행사), 3)공연행사(국악한마당 외 10개 행사), 4)경연행사(수궁가경창대회 외 7개), 5)기획 및 체험행사(소망龜만들기 외 11개 행사), 6)기타부대행사(소망등달기 외 6개 행사) 등 총 48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8개 축제 행사 총 수궁가경창대회 및 고수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여섯줄냈두리, 국악한마당 행사 등을 별주부전테마파크 아외공연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리

적이라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는 위에서 열거한 수궁가경창대회 및 고수대회 등 일부 행사는 별주부전테마파크에서 개최 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은 물론 별주부전 테마파크조성 사업을 조속 완공토록 도와주실 것을 강력 건의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비토 바다낚시공원조성사업과 거북유람선 활용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6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거북유람선을 비롯 낚시공원조성사업장 내에 "별주부전해상카페"로 재활용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매체분을 중지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 시행코자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북유람선 활용을 위한 설계 등 기본적 집행 준비상태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토선에는 별주부전의 전설이 있어 거북선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비토선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거북유람선 해상카페에서 차(茶)를 즐기고 휴식과 주억을 만들 수 있도록, 거북유람선이 "별주부전해상카페"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가시적 추진 시행을 촉구 건의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봉명산 다솜사 등산로 인근 녹차밭 옆에 있는 서봉사지(北)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명산 다솜사 등산로 인근에는 천년의 역사를 고이 간직하고 있는 서봉사의 옛 절터 서봉사지(北)가 있습니다. 서

봉사지에는 천년 전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어둔 직사각형의 블로 측조된 우물이 있습니다. 그 곳에 있던 서봉사 건축물은 화재로 전소되어 없어지고, 절터는 녹차밭으로 변하여 있지만, 천년 전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어둔 직사각형의 석조 우물에는 지금도 샘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봉명산 다솜사 등산로를 찾아오는 등산객들이 천년 전의 조상님들이 만든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달래고 심신을 재충전하면서 천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서봉사지(北) 우물터 옆에 "안내판 설치와 작은 쉼터" 조성사업을 제안합니다.

간 시간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 무단점용과 도시가스 보급 확대 건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사천을 소개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첨단항공과 해양관광의 도시 사천이라는 말입니다. 해양관광하면 멋진 해변과 해안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천읍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해안선을 즐기기 위해 드라이브를 하다보면 도로 한가운데를 기계 구조물이 막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왕복 4차로 중 삼천포 방향 2개 차선과 사천방면 1개 차로를 막고 있어 승용차 1대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으며 교통표지판 조차 없어서 항상 사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사천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시민은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해안도로의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다수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법시행령에 따르면 도로점용은 전선주 등 공의시설과 공사 등을 위한 임시 점용 등만 가능하며 이것 또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조선소의 경우 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도 아니고 공사 등을 위해 임시로 점용한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점용하고 있으며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도로점용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불법이며 이를 방조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진과 관련 글을 게시했는데 평소 불편을 겪던 많은 시민들이 공감과 조속한 해결의 염원을 담아 글들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모든 언론들이 매인뉴스에 해안 도로 불법 점용의 부당함과 해결을 촉구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조속한 시일에 해안도로를 시민의 품에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천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 10년

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등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시민들이 안락하게 살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 시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시민들이 에너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시 예산을 지원해주세요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요즘 에너지 빙곤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연탄은 가격은 저렴하나 안전사고나 쓰레기 처리 문제가 있고 등유나 LPG 난방은 가격이 비싸고 LPG의 경우 폭발 등 사고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가 그 대안이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에너지 빙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예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재삼 문학제 관련 각종 축제에 대해 철저한 관리 문제, 박재삼 문학제 관련 각 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 모금액 관련, 박재삼 문학제 불법 모금액은 지난 2011년부터 결산서에 결산조차 안한 이유와 지난 3년간 정확한 금액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처 관련, 불법모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은 점, 축제 지원금과 불법모금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의 필요성의 순서로 발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불법이 판찰 수 있었던 것은 축제비용과 기부금에 대하여 결산을 철폐하지 못하여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는 합법적이지 않은 임의의 단체 통장을 개설토록 하여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 또한 있다고 봅니다.

공의의 목적인 축제에 사천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찾아 금품을 요구했고 정

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모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국세청으로부터 기업체에 이중과세를 당하도록 한 것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 모금한 금액이 지난 3년간 얼마인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불법모금에 대한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하게 자료를 내놓지 않고 방해하는 단체는 2014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공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내놓지 못하는 단체가 무슨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횡령과 개인적인 사용으로 인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우리 시에서는 불법 모금한 금액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밝혀 한 접의 의혹 없이 경리하여 시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일관한 행정으로 말미암아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여 제기하지 않았다면 담당부서에서는 방관으로 일관하여 문제가 제기되

지 않고 편의주의적인 행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민의 혈세 누수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복지예산 및 보조금 누수현상에 대하여 경상남도에서도 대대적인 감사를 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박재삼 문학제에 대한 결산서조차 불법 모금한 금액을 경리하지 않는 것은 엄친한 기업인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불법모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박재삼 시사랑회, ○○○○ 개인통장, 사천시 공무원 통장에 대하여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명명백히 밝혀야 할 사항입니다. 불법모금을 제멋대로 사용하지 않고서는 투명하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불법모금이지만 정산서 제출을 하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 9면에 계속



최용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최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갑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 시장을 맡기시는 정만규 시장님과 북북히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에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 조선업체의 해안도



조성자 의원
총무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성자 의원입니다.

결심의 계절에 우리 시의 정명 600주년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최갑현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내용을 요약하면,

8면에 이어

다섯째, 사천시는 축제 지원금과 불법 모금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대한 시의회 의지가 필요하며 개인등장으로 돈을 받았고 축제예산에 임금도 하지 않았으며,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결산서조차 제출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불법 모금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으며, 횡령하였는지 수사기관만 바라보지 말고 철저한 시의회 자체조사도 필요합니다. 수사 담국의 수사와 사천시의 철저한 수사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의회에서 다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삼 문학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시정 질의에 문인들을 내세워

기자회견을 한점에 비추어 지금쯤 ○○○ 운영위원장 이하 분인들은 익 시의원들에게 고발을 달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했어도 몇 번을 하고도 남을 빤데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운영위원장으로서 불법보금과 보조금 관련하여 투명치 못한 예산집행에 관한 경산서 미제출과 험령 건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경 제대로 집행에 대한 상식도 무지한 채 운영위원장의 자리 고수가 공인으로서 기본이 되어있지 않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도의원으로서 수사대상에 있는 분이 어떻게 도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음인지 의심스럽습니다만, ○○○ 도의원은 도정질의를 통하여 경남도 문화단체에 대한 기부금법 및 회계교

육과 관련한 질의를 보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면 문화단체에 대한 기부금법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함에도 상식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노출시킨 질의이며, 회계교육을 따지기 이전에 개념 없는 공금 집행 부분은 마치 회계교육을 받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처럼 동일시 한 점은 도정질의를 떠나서 ○○○ 운영위원장 스스로 먼저 자기 문제에 대한 답변을 사천시 인해에 하여야 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박재삼 문학제 운영 위원들은 이런 사태까지 끌고 온 박재삼 문학제 운영위원회, 사부국장 및 운영위원회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일괄 사퇴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학책성이 있다고 보

며, 운영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운영위원들의 부보수·봉사는 규약이 부색할 정도로 고액·심사료·챙기기에 급급한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운영위원회를 심사근거 없는 심사에 대한 심사료 미련두사지 마시고 부보수의 규약대로 사전시에 자진납부를 하시는 것이 세금을 납부한 시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기에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면서 보조금 및 불법모금의 부명한 경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본 의원과 함께한 농묘의원들은 시민의 혈세가 쟤지 않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생각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천시의회 발로 뛰는 현장점검 눈길

사천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오전 각종 대형투자 사업을 비롯한 민원이 제기된 인·허가 현장 등을 겸검하기 위해 대책 이 협조방문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방도 1016호선 우회 도로 협상을 시작으로 학종상재노고단지

와 실안동에 소재한 사천시 종합장사시설 신축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경동면 고읍리 일원의 사천강 하천환경 조성사업장 등을 둘러보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다.

이번 협장방문 활동을 시가 축제 주제

각종 사업장 현장을 확인·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해 향후 개선점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은 주민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신속히 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68회 정례회 사전서 개최

제168회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배종천) 정례회가 지난달 27일 사
천시청 3층 종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도내 18개 시군별 회의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그동안 경남협의회 활동사항과 지난 달 12일 전남에서 개최된 제177차 시·도 대표회의의 결과와 둘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제 178회 시도대표회의 지방의정봉사대상 시상자 선정 등 기타 현안들에 대해 서도 토의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를 맞았다”면서 “경남지역의 공동발전을 이루기 위해 의장협의회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움직여 시·군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 회는 각 시·군의회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시·군의회를 수시히 만나 개최하고 있다.

서포면 재첩 체험·농수산물 판매행사 열려

조도자를 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 강금웅)에서는 지난 11월 16일 조도 뱃개 어장주위에서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도 재첩 체험 및 농수산물을 시식·판매 행사를 가졌다.

이번 재첩 체험행사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호박, 재첩, 꿀, 팔국수 등 농수산물 판매장을 마련해 높은 인기를 얻었다.

조도자를 관리어업공동체는 매년 1회씩 조도 재첩 체험 행사를 개최해 문화적



(풀망독) 낚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구포마을 유채단지 종자 파종

구포마을 유채 및 배밀꽃 단지 추진위원회(위원장 류재명)에서는 지난 11월 16일 사천대교 나들목 구포마을 유휴지(35,000㎡)에 시든 배밀꽃을 경리하고 그 자리에 유채종자를 파종했다.

구포마을 유유지는 사천대교 가설공사 시 공유수면을 배립해 사로장 및 작업장으로 활용한 부지로, 사천대교 건설 이후 공유수면 배립공사가 준공되어 일부는 도로와 주차장 등 고유목적으로 사용



됐다.

나머지 대부분의 땅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동서동 11개 조직단체 단합대회 개최

동서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홍찬)와 동서동주민센터에서는 지난 11월 6일 동서동 11개 조직단체 100여 명과 함께 단합행사를 다녀왔다. 평소 살기 좋은 동서동 만들기에 희선을 다한 조직단체 회원들은 이날 합천댐과 합천해인사 등을 방문하며 친목을 도모했다.

정홍찬 위원장은 “동민한마당체육대회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조직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상



호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구동 지역주민 건강 토론회 개최

사천시 선구동 건강위원회(위원장 서창현)는 지난 10월 30일 선구동 주민센터에서 동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암예방 및 건강검진을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상남도 건강증진사업 지원단장 김장락 교수와 삼천포서울병원장(한창섭), 삼천포제일병원장(정관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보험급여

과장(이봉수) 사천시 보건소 가정의학과 전문의(김우재)가 참여한 가운데 암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건강 식생활 및 규칙적인 운동에 대해 토론했다.

선구동 건강위원회는 선구동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동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한 선구동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

선구동 조직단체 단합행사 가져

선구동주민센터(동장 김광희)와 선구동체육회(회장 김기열)에서는 지난 11월 6일 선구동 조직단체 회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 평평군 일원에서 단합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제2회 선구동민 체육대회와 동경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를 계기로 동경 운영에 대한 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동서금동 새마을협의회 경로당에 고구마 전달

동서금동 새마을협의회(회장 김태수·이재점)는 지난달 11일 오전 수확한 고구마를 관내 14개 경로당에 전달했다.

새마을협의회 관계자는 “고구마를 받으시면서 맛있는 간식거리가 왔다고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소외된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더 봉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서금동 조직원 단합대회 개최

동서금동 체육회(회장 박종혁)에서는 지난달 7일 동서금동 전조직원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4회 동서금동민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평소 동경발전을 위해 협조해 준 단체 조직원들의 사기得不到 고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조직원 150여명은 단합대회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향후 동경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벌용동 대한노인회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벌용동분회(회장 정영석)는 지난 11월 12일 오전 삼천포종합운동장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벌용동 분회장을 비롯한 관내 경로당 회장과 총무 등 30여 명은 삼천포종합운동장을 보존하기 위한 자연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삼천포종합운동장 주변 환경정비에도 나섰다.

한편 정영석 회장은 “노인회에서는 깨



끗한 벌용동 만들기를 위해 매년 자연보호 캠페인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향촌동 연합청년회 불우세대돕기 이불 기탁

향촌동 연합청년회(회장 김경수)는 지난달 20일 관내 불우세대를 도와달라며 이불 15채를 향촌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향촌동 연합청년회는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이불을 비롯한 각종 물품들을 주민센터에 기탁하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이웃사랑의 핵심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각종 행사마다 솔선수범해 지역봉



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동경 및 시경에도 적극 협조해 향촌동 지역발전에 충족가되고 있다.

남양동 남양동민 건강걷기대회 개최

남양동체육회(회장 유진수)에서는 지난 11월 2일 지역주민의 화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남양동민 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와룡산에 조성된 명품산자락길의 숨은 매력을 알리기 위해 열린 이날 대회는 참가자들이 남양 임내숲에 모여 간단한 준비 체조를 하고, 임내저수지, 갑룡사를 경유해 와룡산 명품 산자락길을 따라 4Km를 걷는 행사를 치러졌다. 이날 대회에는



50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자전거 10대를 포함한 다양한 경품을 제공했다.

사천읍 자원봉사회 독거노인 효도관광

사천읍자원봉사회(회장 안동남)에서는 지난 10월 30일 읍내 독거노인 19명을 모시고 충남 부여군 일원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향토음식을 맛보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안동남 회장은 “평소 홀로 외롭게 사시는 노인분들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잊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는 보람된 시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는 보람된 시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일전망대 견학

사천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외규)에서는 지난 11월 16일 회원들의 화합도모와 안보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강원도 고성군의 통일전망대를 견학했다.

이날 견학에는 주민자치위원 20명과 사천읍 주민자치센터 8개 프로그램 감사 및 회원 40명이 함께해 분단국의 현실을 느끼고 통일의 중요성을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동면 특산물 단감 수확 일손돕기

정동면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단감 수확철을 맞아 단감재배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일손돕기에는 공군제3훈련비행단, 4대대, 철쭉회, 동서금동, 시 기술지원과, 군무원, 정동면 직원 등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서리 피해를 입기 전에 단감 수확을 마무리했다.

정동면 관계자는 “단감 등의 과실수확은 기계화가 불가능해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수확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려 단체들의 보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요구된다”며 지역 봉사 단체의 도움의 손길을 부탁했다.

사남면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 법질서 캠페인

바르게살기운동 사남면위원회(회장 윤유덕)는 지난달 5일 사남면 병둔사거리에서 ‘법질서 확립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사남면(면장 이의식) 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법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윤유덕 회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기초질서를 지키고 겨울철을 대비한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록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남면청소년지도위, 청소년 비행예방

사남면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장 김진호)는 지난달 26일 오전 동계 청소년 비행예방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 직후 지도위원 30여 명은 부르지오-진사주공 아파트 일원과 화전리 일원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안내 전단지와 견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총보물을 배부하고 비행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용현면 면민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돕기

용현면(면장 혜태중)에서는 가을 영농철을 맞아 관내 단감재배 농가를 방문해 단감수확 및 포장작업을 도왔다.

이날 혜태중 면장은 “농촌일손 돋기로 직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힘이 들었지만, 농업인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함께한 뜻 깊은 하루였다”며 “앞으로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 적기 영농이 되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고 말했다.

용현면자원봉사회, 밑반찬 봉사활동

용현면자원봉사회(회장 혜숙녀)는 지난 10월 24일 저소득소외계층 및 독거노인을 위해 밑반찬을 제공했다.

이날 자원봉사회 전 회원이 밑반찬 봉사에 참여해 독거노인 및 결손가정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혜숙녀 회장은 “다소 부족한 면은 있지만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고마움을 전했다.

죽동면 민방위 산불진화 시범훈련 실시

죽동면사무소는 지난 11월 15일 죽동면 사마마을 정자나루 앞에서 의용소방대, 주부민방위기동대, 새마을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원봉사회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방위 산불진화 시범훈련을 실시했다.

민·관·군·경이 함께 참여한 이날 훈련은 자연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사태에 대비한 종합적인 공동체계를 확립하는 시범훈련이라는 평가



를 받았다.

곤양면 곤양면민체육대회 성황리 마쳐

곤양면민의 화합 한미당 축제인 ‘제27회 곤양면민체육대회’가 지난 11월 2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알찬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곤양면의 역동성을 제현하는 전통 춤다리기를 시작으로, 면민이 함께 하는 화합한마당 경기로 진행되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조복래 곤양면체육회장은 대회사에서 ‘앞으로도 많



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곤명면 가을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

곤명면사무소(면장 이영호) 직원들은 지난달 7일 가을철 영농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직원들은 곤명면 작팔리 소재 명당농원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50박스의 감을 수확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농촌 일손돕기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면사무소 직원들



은 일손을 도와 농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눈에 보는
도로명주소**

• 우리집 주소 쉽게 찾기

인터넷 검색창에서 주소(1) 새주소(2) 이름(3) 주소(4) www.juso.go.kr(5) 이용해 주소를 검색해 보세요.

• 도로명주소(새주소) 부여 기준은?

간접연번은 도로의 시점에서 원래은 출수, 오른쪽은 짹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 도로명주소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읍면지에는 읍면단위까지 표기합니다.
동지역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명칭을 참고함과 ()으로 주소 끝부분에 표기합니다.

| 읍 면 | 지 번 | 주 소 | 새 주 소(도로명 주소) |
|-----|-----|-----------------------------|---------------------------------------|
| 밀양 | 읍면 | 사천시 8번면 대곡리 301 | 사천시 8번면 대곡리 301 |
| 주례 | 읍 | 사천시 주례면 302-10 | 사천시 주례면 302-10 |
| 공동 | 읍면 | 사천시 응현면 신제리 3-1 동강마을리 0층 0호 | 사천시 응현면 신제리 3-1 동강마을리 0층 0호 (동강마을리 0) |
| 주례 | 읍 | 사천시 주례면 304-1 경남마리도 0층 0호 | 사천시 주례면 304-1 경남마리도 0층 0호 (경남마리 0) |

※ 도로명 주소는 "사천시 응현면 시장로 77번"으로 표기됩니다.

• 도로명주소(새주소)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나요?

- 2012. 1월부터 주민등록증 등 각종 공적장부 발급 시 도로명주소로 발급됩니다.
- 2013. 12월까지는 기존 지번주소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도로명주소 사용을 권장합니다.
- 2014. 1.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천시청 민원자체 및 새주소담당 T. 831-2320~3

사천시청

2013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1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납부기간 : 2013년 12월 16일~31일
□ 납부세액 :

- 승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연세액
- 자동차 1대의 각 기본세액 = 연세액/2-(연세액/2×5/100)(차령-2), (2≤차령≤12)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을 자동차세와 함께 부과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
- 승합·화물자동차 : 정액세(6,600원~157,500원)

□ 납부방법 :

- 고지서 납부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관내 전 금융기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금융결제원으로 사이트 (<http://www.giro.or.kr>)에서 회원가입 후 조회 및 인터넷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국내 모든 신용카드 가능
- 인터넷 및 은행CD/ATM에서 납부 가능
- 시청 세부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 가능

□ 문의 : 시청 세부과 자동차세 담당자(☎831-2870)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세부담당자

사천·삼천포종합운동장 사용 제한 안내

사천·삼천포종합운동장 천연 잔디보호를 위해 사천시『체육시설물 관리 조례』제7조 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 시설명 : 사천·삼천포종합운동장
- 제한기간 : 2013년 12월 21일 ~ 2014년 3월 20일
- 제한사유
 - 동절기 및 봄철 생육기 잔디 보호
 - 보온용 차광막 설치

행정안전부 사천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문

▶ 상세주소는 왜 필요할까요?

- 원·다각구주체 등은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운전면허증 등에 통·총 호수(상세주소)를 주소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라 세금고지, 예비군·민방위 훈련, 운전면허 학성검사, 기타 공공서울 등 공공기관에서 방송하는 문서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13.1.1부터는 원·다각구주체·상가건물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이메일과 같이 면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인터넷·다각주체 등 꿈로주체는 청약 건축물 대상에 통·총 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세주소 부여대상이 아닙니다.

▶ 상세주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청인 : 건물용지의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세금고지가 산정하지 않는 경우 당첨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 : 건물용지 소유자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합니다.
- 처리기간 : 민원신청일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부여결과를 통보드립니다.
※신청서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10일 안에 통보드립니다.

▶ 상세주소는 어디에 활용하나요?

-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되는 등 공공기관에서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우편번호·택배통의 전달수령이 편리합니다.
- 전입신고 이후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에 주민등록주소 경정장을 하여야 합니다.
- 다각구주체 등도 이메일처럼 등총 호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지 않은 경우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경우

사천시 사천읍 서림길 1~19 사천시 사천읍 서림길 1~19, 207호(아침내)
사천시 현촌2길 32 사천시 현촌2길 32, 403호(현촌동 3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자체과(☎831-2320~2321)로 문의바랍니다.

사천시장

KTX보다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항공여행이 더욱 가벼워집니다

비행기 티켓 한 시간당 거리 KTX 타면 두세시간
하지만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그런

**항공료, 주차료 할인으로
KTX가격에 비행기 타세요!**

한국공항공사가 마련한 항공, 아시아·Europe, 예비부산과 함께 준비한 더욱 저렴하고 더욱 빠른 항공여행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행사기간 : 2013년 11월 18일 ~ 2014년 1월 12일 18주간

대상노선 : KTX영업권 5개 노선(김포~김해/울산/포항/아주/사천)

할인내용 :

- 항공요금 및 주차장 사용료 (김포, 김해공항은 주차장 사용료 할인 제외)
- 기존 항공료 할인 평균 7,000원 + 공항철차 통행료 할인 10,000원~18,000원 + 주차료 할인 (최대 18,000원)
- + 할인 항공편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기차 차내판은 홈페이지 참조

KAC 한국공항공사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 안내

□ 유류세 환급대상자

- 유류세 환급대상자 즉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대상자는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류세 환급액 및 시행시기

-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원의 한도내에서 환급
 - 취발유 또는 경유 : ₩ 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부탄 : ₩ 당 100원의 개별소비세
- 2014.12.31.까지
 - ※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만 환급 가능하므로 그 외 방법으로 구입된 유류에 대하여는 환급 불가능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신청

○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 접수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전화 접수 : ARS 080-800-0001번으로 접수하면 상담원이 추후 연락하여 카드신청 접수(접수서류는 상담후 팩스로 송부)
- 인터넷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 카드신청(접수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 신한카드홈페이지 → 카드발급, 신청→제 휴·특화→특화→「경차사랑 유류구매카드」신청
 - ※ 카드발급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1544-7000)로 문의

□ 유류세 환급 방법

○ 카드종류에 따른 유류세 환급 방법

- 신용카드 :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 차감
- 체크카드 : 봄장 연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 차감

희망2014나눔캠페인 성금 모금

우리 주위에는 아직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한 '희망2014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을 실시합니다.

사천시민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웃사랑을 기다립니다.

○ 모금기간 : 2013. 11. 20.(수) ~ 2014. 1. 31.(금)

- 매월 자동이체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세요(문의 : 055-270-6700)
- 공동의 전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세요(사랑의 ARS 060-700-1212)
- 나눔으로 따뜻해지는 사이버세상을 경험하세요(<http://gn.cheest.or.kr>)
- 금융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모금함을 이용하세요
- 아래의 언론사 계좌 및 공동보금회 사랑의계좌를 이용하세요

|언론사 모금 계좌|

| 언론사 | 연락처 | 은행 | 계좌 | 예금주 |
|---------------|--------------|----|------------------|----------------|
| KBS창원 | 055-280-7000 | 농협 | 301-1112-1112-71 | 경남공동모금회(창원KBS) |
| | 055-280-7001 | 경남 | 511-32-0000357 | 창원KBS경남공동모금회 |
| KBS진주 | 055-740-7125 | 농협 | 301-1113-1113-81 | 경남공동모금회(진주KBS) |
| | | 경남 | 511-32-0000360 | 진주KBS경남공동모금회 |
| MBC경남 (창원) | 055-250-5025 | 농협 | 301-1114-1114-91 | 경남모금회(창원)경남MBC |
| | | 경남 | 511-22-1042903 | 경남MBC(창원)경남모금회 |
| MBC경남 (진주) | 055-771-2127 | 농협 | 301-1115-1115-01 | 경남모금회(진주)경남MBC |
| | | 경남 | 511-22-1042893 | 경남MBC(진주)경남모금회 |
| KNN | 051-850-9215 | 농협 | 301-0032-7656-3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남지회 |
| | | 경남 | 634-07-0006853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경남지회 |

|사랑의 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
| 농협 | 301-0032-9529-11 | 외환은행 | 074-22-00647-6 |
| 우체국 | 612-00-01-000273 | 우리은행 | 751-04-108497 |
| 경남은행 | 511-32-0000343 | 신한은행 | 140-003-25112 |
| 국민은행 | 841-101-01-00323 | (예금주 : 경남공동모금회) | |

사천시

대설 및 한파주의

◆ 대설 차량 고립시 대처법

- 출발 전 기상정보와 목적지까지 우회도로를 미리 파악하고 원동장비와 연료, 식료품 등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 고립·경제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 및 휴대 전화 재난문자방송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과 행동요령을 파악한 후 행동합니다.
- 부득이 차량을 이탈할 때는 연락처와 키를 끊어 둔 채 대피합니다.
- 인근에 가옥이나 휴게소 등이 있으면 음금환자 및 노인, 어린이 승객을 우선 대피시킵니다.
- 차량하티 작동 시에는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자주 열거나 조금 열어둡니다.
-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 베기판(머플러)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차량 출발이 쉽도록 합니다.
- 모두 동시에 잠을 자지 말고, 등승자가 있는 경우 교대로 잠을 자도록 하여 항상 주위 상황을 살핍니다.
- 제설작업 차량이나 구급차의 진입을 위하여 갓길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 차량고장 등의 상황 발생 시 즉시 도로관리기관,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연락을 취합니다.
-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 가족과 친지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 당황하지 말고 경찰이나 도로관리기관 직원 등 관계자의 등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합시다.

◆ 한파 발령(주의보/경보) 건강관리법

- 손가락, 발가락, 귀바퀴, 코끝 등 신체 맨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등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갑작스런 기온 강하 시 삼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 노인 또는 병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 외출 후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로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뇨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 등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등상부위를 바비거나 갑자기 불에 쳐어서는 안 됩니다.

◆ 한파 청전 대비법

- 손전등, 라디오, 온열기 등을 준비합니다.
- 청전이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신고합니다.

2014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신청기간 : 2013년 12월 2일~13일

□ 합격자 발표 : 2013년 12월 31일(예정)

□ 선발 예정 인원 : 60명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재산이 1.35억원이하이면서 실업자 또는 경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 한 자

□ 참여 할 수 없는 자 : 전 단계(하반기)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공무원가족,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경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0.5ha이상 경작)이나 그 배우자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읍면동 비치)

○ 건강보험증(최신발급분), 배우자 미등재시 배우자 건강보험증 별도제출)

□ 사업기간 : 2014년 1월 6일~6월(사업비에 따라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사업 분야 : 4개사업군(경보화·서비스지원·환경경화·기타사업)

□ 근로조건(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시간 : 1일 8시간이내이면서 주28시간 이내

단, 청년일자리사업은 주35시간 이내

○ 임금 : 시급 5,210원, 교동비 2,500원, 주휴수당

□ 문의 및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우주항공소년 포록이의 항공 이야기(120)

차세대 전투기(F-X) F-35A 선정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F-X)로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선정되었다. 군은 지난 11월 22일, 스텔스기인 F-35A를 차기 전투기로 선정하고 2018년부터 40대를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미 보잉사의 F-15SE를 단독 후보로 내세웠다가 스텔스 성능에 부족하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선언한 지 두 달 만이다.

F-35A를 차기전투기(F-X) 단독 후보로 경한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차기 전투기 사업과 관련한 기준, 군 요구 성능에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전자전 능력을 포함시켰다. F-35A는 개전 초기 전쟁 주도권 조기 확보와 적의 전쟁수행 능력을 조기 무력화하는 전략무기로 사용 가능하며, 국지도발 때도 효과적인 응정보복을 위한 대응전략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스텔스기인 F-35A가 도입되는 2018년부터 우리 군의 공중작전 개념과 전술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일반 전투기는 공격편대가 출동하면 지원 및 보호 역할을 하는 전투기도 함께 출격해야 하지만 스텔스기는 4대의 공격편대만으로 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이 2016~2019년 사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확보할 계획인 점도 군 당국

이 스텔스기로 차세대 전투기 요구 성능을 변경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차기전투기(F-X) 사업은 2007년 1월부터 시작됐으나 기종 선정 등을 놓고 6년 이상 지연되었다. 지난해 1월 사업공고 이후 시험평가와 각각 및 결승교류 협상 등을 거쳐 올해 7월부터 F-35A(록히드마틴), F-15SE(보잉), 유로파이터(EADS) 등 3개 후보기종을 상대로 가격입찰에 들어갔으나 총사업비(8조3천억원)를 충족하는 기종인 F-15SE만 날개 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24일 F-15SE를 차기전투기 단독후보로 선정했으나 회의에서 기종 선정안은 부결됐고 결국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작전요구성능(ROC)이 수정됐다.

공군의 차기전투기(F-X)로 결정된 F-35A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에서 2016년 개발을 모두 완료한 예정인 신형 전투기로서 탁월한 스텔스 기능과 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최신예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길이 15.67m, 폭 10.7m, 높이 4.38m, 최고속도 마하 1.8(초속 612m), 작전반경 1,200km, 최대무장탑재량 8,200kg, 엔진 1기를 장착하는 최신 기종이다. 또한 F-35A는 공대공, 공대지 작전능력을 갖춘 '블록3'로서, 내부 무장창에 공대지미사일 2발, 공대공미사일 2발 등 총 4발의 미사일 장착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교수 김형래

공기압축기를 개인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 경 용
명예시민기자

사천시민들과 전국의 산악인들의 등산코스로 각광받는 삼천포항 소재 각산등산로 입구에는 시민들의 웃과 먼지를 털어주는 에어컴프레서(공기압축기)가 설치되어 있다.

본인도 평소 이 기계를 자주 이용하고 사용할 때 마다 고마움을 표시시킨다. 기자는 가끔 등산로로 잘 알리지 않아 비포장으로 된 비정상 길을 걷다 보면 웃기자에 땀과 먼지는 물론이고 신발에 흙을 묻힐 때가 있다.

산행을 마치고 본인은 이 기계를 자주 이용한다. 세찬 바람이 날릴 때면 온갖 스트레스와 피로를 함께 날리곤 했는데, 어느 때부터 이 기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목격하면서 산행하는 다른 등산인들의 눈살을 짜푸리게 했다.

얼마전에는 개인용 컴퓨터, 산업용 기계

등 온갖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20분 대지 30분가량 기계를 돌리고 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등산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협세로 설치된 기계를 개인의 사리를 위해 사용한다는 건 어느 누가 보아도 표현은 안했지만 쓸쓸할 일이다.

기자는 혹시나 다른 곳에도 그러한가 싶어서 돌아보았지만 대방사 암구와 운문방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시민의 협세로 설치된 이 기계를 다른 용도로 사용치 말라는 표구도 보이질 않았다. 하긴 그러한 용도로 쓸 거라는 생각을 당초 고려하지 않은 만큼 그러한 글귀가 설치된 것이라고는 만무하다.

사무용품점에 가면 3,000원 하는 먼지 날리는 봉을 팔기도 하고 컴퓨터가게에 가면 먼지 날리는 공기압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등산로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지 사라져가는 시민의식이 아쉽기만 할 뿐이다.



정 영 휘
명예시민기자

글로벌 시대를 산다는 건

다사다난했던 2013년 계사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한 달 여부에 남지 않은 시간이나마 무사히 간절함으로 소원해보지만 국내의 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다.

2008년 2월 10일을 기억할 것이다. 온 국민을 애태했던 국보 1호 승려문 화재. 활활 타오르면 불꽃만 큼이나 주체할 수 없었던 상실감과 애통함을 닦고 하루빨리 복구되길 원 국민이 염원했지만 지난 5월 다시 개방된 지 반년도 안 되어 단청이 벗겨지고 기둥나무가 쪼개지는 등의 부실공사에 미쳤다니 아이없고 참담하기 그지없다.

안전성의 문제로 하루가 멀다시피 논란이 되는 원전사고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이 담보되어 있어 조그만 실수도 용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량부품을 사용하거나 아이없는 원인들로 인해 수시로 가동이 중단되고 있으며, 는 가리고 아웅 삭의 안전감열 뒤에 찾은 사고를 따라오는 엄청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뒷으로 남게 되었다 한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자존심과 생명을 담보로 해놓고도 버리 뒤에 행해진 무모함에서 비롯되었다니 참 괴롭지하니 짹이 없다. 절대로 쉽게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나 엄중한 처벌과 대가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흔히들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노라 외

친다. 많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자랑하며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보물들은 나아가서는 세계가 공유하는 세계의 유산으로 보존될 것이다.

안이함에서 뱃어지는 소소한 재난의 요인도 결국엔 생명을 위협하고 온 세계를 곤경에 빠뜨리게 할지도 모른다. 지난해 일본에서 일어난 원전사고도 멀지 않은 시간 우리나라 일부 수산물에서도 소량의 방사능이 검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는가. 지난 11월 8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역대 가장 큰 태풍이라는 하이옌의 타격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필리핀의 재난 또한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문제다.

이상기후변화로 언제 어디서고 일어날 수 있는 두렵기만 한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들의 아픔에 온 세계가 동조하고 있다. 우리에게 알장사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오래전 우리의 고마운 우방국으로 북송 바쳐 우리나라를 도와주었고 지금은 필리핀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정을 이루거나 근로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절망은 한내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아니 온 세계가 함께 나눠져야 할 점이다.

십시일반이라 하지 않았나. 진정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간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보자.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올해다. 그 누구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의 재난은 허용되지 않는 무사하고 평화로운 송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자원봉사 27년의 구심회



이 창 조
명예시민기자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딸력이 12월 마지막 한 장만 남겨 놓은 채, 뜻다 한 일들과 자신의 주변경리를 하기기에 매우 바쁜 연말이다.

1년을 되돌아보며, 묵묵히 맡없이 자원봉사 27년을 해오고 있는 사회봉사단체인 구심회 자랑을 하고 싶다.

지난 1986년 11월에 발족한 구심회는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천시 동지역 중동과 서로 구분된 이용업소가 있는데 동쪽지역에서 이용업을 하는 업주 9명이 모인 단체 이름이다.

1985년 8월 3일 정식 발족한 "사회복지법인 합심원" (사천시 삼상로 613번지 원장 강혜준)의 생활인을 위한 이용 봉사 단체를 만들어 (초대회장 정연재) 27여년 동안 묵묵히 맡없이 매월 화요일(휴업일)에 한번도 빠짐없이 평균 100여명의 합심원 생활인에 대한 이·미움을 위한 자원봉사를 해온 단체다.

현재 정연재 회장을 중심으로 합심원 생활인들의 깨끗하고 단정한 응모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

하나 어느 국가, 지방단체로부터 고마운 소리조차 듣지 못하면서 말없이 봉사한 겹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2012년 9월 제13회 사회복지 기념의 날에 경남사회복지회장으로부터 대상을 받았다.

한편 이들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결손 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각 이발소별로 수시로 모셔와 월 평균 전체 2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이용봉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거동이 불편한 5명의 독거노인들에게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 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등불이 되어주는 지역사회 회의 자랑스러운 봉사자들이다.

1980~1990년대 어려웠던 때도 합심원 생활인들에게 목욕을 시켜줬으며, 필요한 비품도 기증해주는 기부문화도 계속 해왔다. 지역 사회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는 모범적 시민으로서 1986년 11월부터 27여년간 총303회년 인원 30,900여명의 합심원 남녀 생활인에 대한 이·미움을 위한 봉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마지막 한해를 보내면서 훈훈한 마음과 아름다운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도토리를 주워가지마세요

주말 상관없이 요즘은 산을 찾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높이문화가 몸살을 앓을 정도로 사람들이 산으로 모여들면서 야생동물들은 사람들에게 쫓겨 먹을 양식을 짜증이 당하고 있다.

인간들도 추운계율을 나기위해 가을걷이를 하고 양식을 저장을 하듯 산짐승들 역시 겨울채비를 한다. 산에 가면, 자연과 힐링하고 풍전하기 위한 워밍업을 하고 돌아오면 될 것을 등산객들과 관광객들의 일부 물지각한 사람들은 야생동물들의 주된 계을 양식까지 챙겨온다.

자연에 대한 감사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짐승들의 먹이를 가로채면 안된다. 토끼나 다크위, 청솔도 고라니, 노루, 뱃제지 등도 도토리를 겨울양식으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들이 가져가는 것 만큼 짐승들은 배고풀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맷돼지가 민가에 접근하다가 이제는 도심 한복판 까지 내려온다. 나는 이런 광경

을 볼 때마다 우리인간들이 자초한 후유증이라 본다. 배고픔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이기지 못하는 것일 수 밖에 없는가! 새소리를 듣고자 또는 신선한 공기를 접하고자 우린 산을 찾지만, 진정 인간은 새들을 쫓아버리며 다크위나 청솔도 노루를 만날 수 없는 쟁악함을 조성하고 있다.

제미삼아 주워 가는 것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 인간들이 자연이 주는 은혜를 잊는다면 자연은 더 이상 우리에게 베풀지 않을 것이다.

국립공원 같은 곳은 엄격하게 배제를 하고 있지만, 기타 산들은 대부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잡목 제거 한답시고 새들의 먹이감도 될 수 있는 나무들이 잘려나가게 된다면 결국 새들을 막는 행위이며, 생태계도 파괴가 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을 초래하게 된다.

도로가에 흔히 립도킬 당하는 짐승들을 접할 때마다,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다. 산과 숲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숲에 대한 용바른 이해와 지도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곤양면 배시남

집단급식소에서의 녹차 음용

사천시에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와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하여 식중독예방을 위해 매년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9월 13일 사천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천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전체업무를 통합관리 지원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매년 많은 인력을 들여 실시하는 위생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식중독예방을 위한 음용수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못한 것이 뜻내 아쉽다. 물은 우리 몸을 만드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학교급식에 관해서 우리보다 많이 앞서간 일본의 녹차 소비현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의 초등학교 육상에는 물탱크가 있는데 여기다 아예 녹차를 집어넣어 교실에서 수돗물을 끓면 녹차물이 나오게 되어있다고 한다. 아이들이 물을 마시듯 녹차를 마실

뿐 아니라 식사 후라면 교외수업 후에는 입과 잇몸을 녹차 물로 헹구어 낸다고 한다. 잘 알다시피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통학한다. 계단에도 반바지에 반팔이 교복인데 이네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지 않는 것과 철분이 아주 낮은 팔암에도 불구하고 충치 등에 걸리지 않는 것도 녹차음용의 생활화 때문이라고 한다.

2012년 4월 1일 현재 우리 사천시 통계년보에 의하면, 유치원, 본교를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대학, 외국인학교 등 총 67개 학교가 있고, 학생이 15,671명과 교직원은 1,585명이 된다. 이들이 1년에 급식용이든 음용수용이든 간에 약 200그램만 섭취 한다 해도 감기 예방, 충치예방, 식중독 예방, 비만,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오는 사회적비용 절감이 대단한 것으로 본다.

결집의 스님들이 수행 경진 중에 차를 즐겨 마시는 이유는 머리를 맑게 하고 잠을 쫓아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녹차를 마시게 하면 이런 효과를 가져와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공부도 월씬 재미나게 할 수 있고 학습 집중력도 증진될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현한 결과 녹차를 마시면 뇌파가 활발하게 움직여 암기력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집단급식소의 음용수에 녹차를 활용하는 것은 집단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은 물론 이거나자나라는 아이들의 심신(心身) 건강을 위하여 차 제제 능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용현면 조영규

사천시보가 전하는 전국항우 동정

2013년도 43애향운동 공로상 정종남씨 수상

사천시 출향인 애향운동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부(회장 천봉근)'는 지난달 25일 '2013년도 43애향운동 공로상'을 시상했다.

이번 시상은 한 해 동안 애향운동에 공로가 큰 사람을 선정, 출향인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사천시 선구봉 출신인 정종남(52세·경기도 성남시)씨를 선정했다.

정종남씨는 현재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본부 전국홍보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 2003년 서울신세계백화점 특산물전을 비롯해 2006년에는 서울청계광장 사전전 등 크고 작은 행사에서 홍보활동을 지원하



정종남씨

며 사천지역 알리기에 앞장서 왔다.

정종남씨는 "평소 고향 사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외지인들에게 고향을 적극 알리는 일은 달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많은 분들이 고향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사천이 더욱 발전하고 비상한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올해는 사천 정명 6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

사천의 혼

와룡산두에 갑(劫) 훔쳤을 제

불사조 새선바위에 날개 쉬더라

아비 찾는 어린 순(王詢)이

아비 육(王肅)의 품에서 능선을 오가더니

사수(泗水)에 몸 뺏는 잠룡(潛龍)이더라

이 땅 원조실록을 시작한

고려 8대 현종(顯宗), 아비 묻혔던 땅을

사주(聖州)라 하고 깊은 경을 내리더라

자풀개에서 한 아이

여든 모래밭을 걸어 선전으로 나가더니

선정에 오르고 선사 오가는 선방마다 불제자 넘쳤더라

석존, 마하가설, 등방오조, 태고보우...

부용영관 62대 법종을 이루고 서산대사께로 내리더라

태종 13년 '사천' 이름 새롭고

진주에서 파반마 삼천진으로 달립제

구암 이정 명나라에서 주자학 보파리 살고 오니

남명조식, 퇴계 이황 찾아오고

리-설, 기-협 뿌리내리고 일 부설 하더라

성옹이여! 당신의 바다

수 백년 지난 오늘에도 여전 듯 선연합니다.

거북선 두 척 첫 출전, 조마조마하던 사천해전 이기고

왜군 밭갈 선전에 잡아두었지요

노랑비단. 모자랑개. 사천만에 자랑 넘칩니다.

진주 삼천포 12차 농악에 어깨춤은 송포 솔밭을 뱀들고
한려바다에서 '천년의 바람' 불어옵니다

박재산 형, 오늘도 나는

'음읍이 타는 가을강'이 어디에인지

불빛 바다에 나린 바닷가를 견습니다

매향이 밤바람타고 산하에 스미네요

비행기 엔진소리 와룡산을 깨우는 아침

사천이 뺨고 나아갈 큰 바다

태평양은 사천의 혼을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박용상

인만큼 함우인들도 올해는 어느 때 보다 자긍심을 갖고 고향 알리기에 앞장선 것 같다"며 "모든 함우인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고향 알리기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표했다. 한편 사천삼천포에 가보자 운동본부는 매년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을 추천 받아나. 운동본부 내에서 누적활동기록을 평가해 공로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소식/

2014년 '재경사천시향우회 시무식' 행사

일시: 2014년 1월 17일 금요일 오후6시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1-3)

교통안내: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

시상: 자랑스러운 사천인상 수상

문의: 경상용 사무총장(☎010-8775-9246)

자살 예방 위한 지역네트워크 풀가동

사천시 보건소, 유관기관 협약, 자살예방팀 신설 등 만전

사천시 보건소는 자살예방팀 신설 및 유관기관 협약 등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들의 생명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시 보건소는 지난 9월 사천소방서, 사천 교육지원청, 사천청소년문화센터 등 관내 8개 유관기관과 '자살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자살예방 안전망 확보를 위해 총 19개 기관과 협약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방서에서는 응급 구호를, 교육지원청과 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예방교육을, 의료기관은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등 자살초기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정신보건 전문의사, 정신보건 간호사, 일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자살예방팀을 신설해 자살 고위험자 관리, 자살 시도자 상담과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사진)

특히 우울증 예방을 위한 우울 선별검사, 생애주기별 우울증 강좌와 경로당 이용 어르신 자살예방교육과 마음평가를 추진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시 보건소는 지난 10월에 상담 및 방문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과정을 신설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자살은 누군가 함께 있어준다는 생각만으로도 예방이 가



능하다. 주변에 외로움을 호소하는 개인들에게 기꺼이 손 내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생활에 힘드신 분이 있으면, 사천시보건소 방문보건당당(☎831-3579)이나 사천시경신건강증진센터(☎831-2795)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市, 생명지킴이 87명 양성

사천시에서는 지난달 6일 보건소 닥터책실에서 '제1기 사천시 생명지킴이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갖고 본격적인 자살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우울증 문제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주관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진행해 총 8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87명의 지킴이들은 시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자살과 우울증 문제에 노출된 지역주민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신건강리더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위기 상황 시에 신속히 전문 서비스를 반도록 연계하는 역할도 생명지킴이들의 중요한 임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우울증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천아카데미 제79강좌

『두뇌장수와 치매예방』

12월 19일(목) 오후2시

사천시청 대강당(2층)

사천시는 오는 12월 19일(목)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국내 뇌연 구의 최고 권위자인 서유현 교수를 초청하여 사천아카데미 제79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두뇌장수학과 치매예방'을 주제로 스트레스, 우울증, 치매 등 감수증 증가하는 뇌질

환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서유현 강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신경의학석·박사를 취득하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국립보건원 뇌의약학센터장, 서울대 신경과학 연구소장을 역임했다.

특히 2009년에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세계 최초로 새로운 치매 유발 유전자인 'S100a8'를 발견하는 등 뇌와 치매 연구 분야의 최고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 주요저서
- 머리가 좋아지는 뇌 과학 세상
- 두뇌 장수학

면서 사천시와 인연을 맺었다.

분당 서울대병원 의료봉사활동은 단순한 진료수준을 넘어 경밀검진과 수술로 이어지는 완치프로토콜을 이행함으로써 생활영역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실제 삼전도, 삼초읍파, X-ray 활용은 물론 저소득층 200명에 대한 진료, 중증 환자 10여 명에 대한 2차 진료와 무료 수술 등 지속적인 관리와 의료혜택을 제공했다.

사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계층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건강증진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학칼럼

콩팥병 이야기

우리 몸에는 약 5~6리터의 피가 있습니다. 피는 깨끗하지만 몸에서 생기는 노폐물이 항상 섞여 있기 때문에 간과 콩팥에서 이것을 하루 종일 걸러내 주고 있습니다.

이 중 콩팥은 혈액을 40번 정도, 즉 하루에 200리터의 피를 걸러서 깨끗하게 해주는 우리 몸의 경수기로서 갈비뼈 등 쪽에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만성콩팥병은 이 콩팥이 지속적으로 나빠져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만성콩팥병을 가진 환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을 가지고 될 확률은 매우 높으며, 특히 심혈관 질환에 걸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주요 사망 원인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사망률은 평균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로 알려져 있습니다.

콩팥병을 의심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것을 단백뇨라고 하며 양이 많은 경우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단백뇨검사는 간단해서 병원에 가서 간단한 시험지 봉 검사만 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단백뇨가 나온다고 콩팥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단백뇨가 있다면 꼭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혈뇨도 만성콩팥병을 의심합니다. 육안으로도 겹거나 붉게 보이는 육안적 혈뇨,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소변에 적혈구가 확인되는 현미경적 혈뇨는 둘 다 콩팥에 병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종이 생기면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몸무게가 늘었다든지 다리 쪽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쪽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거나 눈 주위와 얼굴이

벗는 경우에는 콩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경우도 콩팥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하는데 콩팥병이 있으면 고혈압이 잘 옵니다. 혈압이 높으신 경우 콩팥기능 검사와 소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까닭입니다.

이 외에도 노뇨증 또는 땀뇨, 지속되는 전신 가려움증, 그리고 급격한 체중 증가 또는 갑소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도 콩팥병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콩팥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한 수분섭취와 운동 및 체중관리, 약제의 부른별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며 위에서 이야기한 증상을 나타날 때는 가까운 병원에 들러 소변검사, 혈액검사 한 번 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윤지철
삼천포 서울병원 신장내과 전문의